

‘연변 10 경’ 공모, 독특한 자연풍경과 인문경관 찾습니다

— 연변, 아름다운 경치 선정으로 지역 문화가치 발굴

12일, 연변주문화라디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은 ‘연변 10 경 (延边十景)’ 징집, 평의, 선발 활동을 개시했다. 이 활동은 전민이 함께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와 인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10대 경관과 그 표어를 모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연변 10 경’ 징집, 평의, 선발 활동은 경관과 표어를 각각 모집하고 평가하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는 연변의 독특한 자연풍경과 인문경관을 전시하고 지역의 브랜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며 지역의 문화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연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새 시대의 새로운 함의를 주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연변 10 경’ 징집, 평의, 선발은 전 주의 전역 문화관광자원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을 기다리는 자연풍경, 역사유적, 홍색경관구, 특색향촌, 변경국문, 인기랜드마크 등 다양한 특색 경관을 징집한다.

대중은 ‘연변문화관광’ 공공계정을 통해 신청하고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현, 시의



문화관광부분, 전문가, 학자는 지역 특색에 립각하여 전문적인 추천을 할 수 있다. 각 풍

전시할 수 있다. 평의, 선발은 경관의 지역 대표성, 문화 독특성, 시각 감상성, 종합 체

표 + 전문가 평의, 심사 + 현지답사 + 문화 해석’ 4가지 척도로 평가되며 4월초에 최종 10

‘연변 10 경’ 명단 공개후 곧바로 ‘연변 10

표어는 경관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새로운 해석을 부여해야 하며 내용은 문화적 의미, 역사이야기, 정치적 높이, 관광 가치를 포함할 수 있고 시, 속담, 지명, 전설 등의 내용을 융합할 수도 있다. 또한 간결하고 알기 쉽고 류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생소한 글자는 피면해야 한다.

표어의 글자수는 제한이 없지만 200자 이내의 설명이 필요하며 한사람이 한개 경관에 대해 3개의 표어를 제출할 수 있다. 표어 평의 및 선발 역시 ‘온라인 투표 + 전문가 평의 및 심사 + 문화 해석’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만약 동일한 최고 명칭을 여러 사람이 제기한 경우, 가장 먼저 제출한 사람으로 정해진다.

이번 활동은 경관 추천상, 표어 채용상, 참여상 등 다양한 격려 기제를 마련하였으며 참여자는 상응한 상품을 획득할 수 있다.

/ 김영화기자

장백산풍경구 입장권 4월까지 할인

장백산풍경구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시작된 장백산풍경구 봄철 입장권 할인 행사는 4월 30일까지 지속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관광객들이 장백산 공식 티켓 구매 경로를 통해 장백산 북서 풍경구의 정가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전부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가입장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입장권 금액의 절반은 7~15일 근무일 이내에 원래 경로로 반환된다.

길림성내 학적이 있는 전일제 대학교 본과 및 대학 전과 (성인교육 및 연구생 불포함) 학생은 학생증을 소지하면 장백산 북서 풍경구의 입장료가 면제되며 표를 구입할 때 북 또는 서 풍경구 할인복합표를 선택하면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여 입장할 수 있다.

이미 장백산풍경구 여행사 티켓 구매 시스템에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서는 장백산풍경구에 연간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지하면 초과 인원예 대해 장백산풍경구 입장권 정가의 20% 할인을 제공한다. 단, 여행사가 누리는 기타 정책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 인민넷

룡정시홍색혁명력사 전시관 곧 개방



혁명정신을 고양하고 홍색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룡정시홍색혁명력사전시관이 개방을 앞두고 있다. 전시관은 룡정시동산홍색문화원내에 위치해있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 참관하기 편리하다.

전시관은 풍부한 역사문물, 상세한 문서자료로 혁명시기 룡정의 장 (篇章)을 전면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혁명사상이 이곳에 뿌리내리고 싹트기 시작해서부터 항일전쟁, 해방전쟁에서의 룡정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사에 이르기까지, 참관자들은 전시관에서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회고하고 선렬들이 국가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 바친 거대한 희생과 끊임없는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또 전문해설원을 배치해 해설 봉사자를 진행하여 참관자들이 룡정의 홍색력사를 더욱 잘 료해하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개방시간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여름 9:00-16:00, 겨울 9:30-15:30 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관한다.

참관방식 :

개인참관자는 개방시간내에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시관 입구에서 등록한 후 무료로 입장에 참관할 수 있다.

단체참관은 3~5일 근무일전에 예약 (단체 참관 예약전화 : 15584670216) 해야 하며 단체 명칭, 인원수, 연락처, 참관 날짜 및 시간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룡정시도서관

지난해 우리 나라 일방적 무비자 입경 외국인 1200.6% ‘썰썰’



‘중국 방문’ 열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38개국에 일방적 비자 면제, 54개국에 240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지난해 일방적 무비자로 중국을 찾은 외국인인수가 전년 대비 120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 12월부터 우리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 뉴질랜드, 벨로루시, 슬로바키아 등

38개국에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 도입했다. 그 결과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인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통해 중국을 찾은 외국인인수는 연인원 339만 1,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입경 외국인수 (변경 주민 제외)의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자 면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자

지난해 11월부터는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입경 사유도 비즈니스, 관광, 친척·지인 방문, 교류, 환승 등으로 확대했다.

중국 외교부 관련 부서는 비자 신청 절차 최적화에 나섰다. 재외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비자 신청 예약 제도는 전면 폐지되고 체류 기간 180일 이내의 단수 또는 더블 단기비

자 신청자는 지문 채취가 면제됐다. 또한 신청서 항목 34%가 간소화되고 비자 발급 수수료도 25% 인하했다.

한편 무비자 체류 기간 확대 정책이 우리나라 음력설과 맞물리면서 ‘차이나 트래블 (中国旅行)’이 세계적인 핫이슈로 떠올랐다.

음력설 연휴 한 프랑스인은 운남성 곤명시에서 중국-라오스 철도에 탑승해 중국 전통 명절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그는 “중국에서 기차를 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음력설 운수 기간인데도 검표가 질서정연하게 이뤄지는 등 매우 편안한 기차 여행이었다.”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 연휴 기간 유니온페이 (银联), 왕련 (网联)이 처리한 해외 방문객의 결제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4.54% 증가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출국 시 세금이 환급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 즉시 환급’ 정책을 시행하는 등 시범 서비스도 도입됐다.

얼마전 발표된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 방안>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국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비자 면제 정책이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개방 확대와 외자 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중국은 타이, 싱가포르, 아랍추장국 련방 등 27개국과 전면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오스트라리아 등과는 10년·5년 복수 비자 상호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 밖에 약 70개 국가 (지역)의 우리 나라 국민에게는 일방적 비자 면제나 도착비자를 적용하고 있다.

/ 신화사

많은 사람들은 장강으로 인해 의빈을 알고 짙은 문화적 분위기와 특히 향긋한 술 오량액 (五粮液)으로 인해 아름다운 도시 의빈을 찾는다.

사천분지의 남쪽, 운귀고원의 북쪽에 위치한 의빈은 금사강과 민강이 합류하는 장강의 기점이기도 해서 예로부터 ‘만리 장강의 첫 도시’라 불리었다.

의빈 도심의 서주성지 (叙州城址)는 명나라 때 축조한 당시 서주부성 (叙州府城)의 터다. 동쪽으로 삼강구를 마주하고 북쪽으로 민강, 남쪽으로 금사강과 이웃한 서주성은 정방형으로 조성되어있다.

돌로 쌓은 서주성의 성벽은 높고 두터우며 견고하기 그지없다. 현재 성문중 하나인 수동문 (水东门)과 높이 5.6~6.3미터, 길이 615미터의 성벽이 보존되어있다.

기나긴 세월은 의빈에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큰 많은 문화재와 고성 유적을 남긴 동시에 의빈 고유의 문화도 형성했다. 그중 가장 특색 있는 의빈문화는 북 (夔)문화와 죽 (竹)문화이다.

의빈의 북문화는 의빈의 역사와 문화에서 기아함을 자랑한다. 북인 (夔人)은 근면하고 용감한 민족으로 당시 산세를 따라 집을 짓거나 물가의 언덕에 동굴을 파고 살았다.



장강기슭의 첫 도시 - 의빈

현재 벼랑에 조성한 무덤 현관과 암석화가 북인들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 현관과 암석화는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하는 벼랑 위에 조성된 관계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북인이 남긴 유일한 문화 유적이 되었다.

‘사천 남부 4 절 (绝)’중 하나인 북인현관은

사망자의 관을 벼랑 위에 보존한, 600여년전에 조성된 고대의 무덤이다. 현재 의빈의 마당패 (麻塘坝)와 소마만 (蘇麻湾)에는 도합 265구의 관이 보존되어있다.

벼랑에는 또 별동지처럼 밀집된 기둥 구멍과 붉은색의 암석화 200여폭이 남아있다. 암

석화에는 사격과 무용, 서커스 등 다양한 동작을 하는 사람이 그려져있고 또 온갖 동물과 무기, 기하학적 도형 등이 그려져있다.

의빈의 또 다른 특색문화는 죽 (竹)문화이다. 의빈은 중국에서 대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곳인데 그중 의빈의 동남쪽에 위치한 대숲

촉남죽해 (蜀南竹海)가 가장 수려하고 아름답다.

면적이 120평방키로메터에 달하고 해발고도 600~1,000미터의 촉남죽해는 온 산밭이 대나무로 덮여 심히 장관이다. 촉남죽해에는 400여종의 대나무가 자라고 크고 작은 명소가 134곳이나 된다.

의빈은 또한 전설 속 인물 나타 (哪咤)의 고향이기도 하다. 나타가 백성들을 위해 악귀와 싸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설이다. 의빈에서는 나타가 태어난 진당관 (陈塘关)과 나타가 악마와 싸운 구만하 (九湾河), 나타가 완골탈태한 오련지 (五莲池) 등을 다 찾아볼 수 있다.

예로부터 술과 인연을 맺은 의빈에서는 천여년 동안 유명한 술이 많이 양조되었다. ‘한집에서 술을 마시면 천집에서 취하고 한집에서 술병을 따면 온 도시에 술 향기가 넘치는’ 의빈은 ‘술의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의빈의 오량액 (五粮液)은 중국의 백주중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한다. 의빈에 남아있는 양조 유적지인 고요지 (古窖池)는 6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양조 유적지는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 국제방송